

1573년 나카제를 흐르는 야기강에서 금이 발견되었습니다.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광산이 문을 열었고, 금은 정부의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채굴장은 성읍(성곽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)과 마찬가지로 삼엄한 경비가 행해졌습니다. 아즈치모모야마 시대(1573-1603년)부터 에도시대(1603-1867년) 전기에는 긴키 지방 최대의 금광으로 번창했습니다. 이어서 안티모니가 발견되었고, 20세기 중반까지 나카제 광산은 일본 최대의 안티모니 광석의 생산지가 되었습니다. 광산은 1969년에 폐쇄되었지만, 안티모니의 정련은 계속되었습니다. 현재도 일본 국내의 안티모니 제품 중 70%가 나카제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. 옛 광산은 견학할 수 없지만, 나카제 금광 검문소에서는 마을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